

중·고등학교에서 생명윤리 교육의 활용

김지혜*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생명윤리의 의미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시작하고자 한다. 생명윤리의 의미에 대해 살펴본 후에는 생명윤리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생명윤리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에 대해 살펴 본 후에는 현재 교육현장에서 생명윤리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생명윤리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한다.

생명윤리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생명윤리 자체가 실천적인 성향을 더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학문이며 학생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활용 될 때 그 의미가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생명윤리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생명윤리교육에 있어서 도덕적 감수성을 키우는 일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 생명윤리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젝트 교수·학습 방법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주요어: 생명윤리, 생명윤리교육, 도덕적 감수성, 비판적 사고력, 프로젝트 학습

* 경상대학교 윤리교육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

I. 서론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됨에 따라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기술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생명에 대한 인간의 개입을 가져왔으며 이는 이전에는 논의되거나 깊이 생각되지 않았던 생명의 범위와 윤리적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특히 가장 중요시되는 점은 생명윤리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교육현장에서 생명윤리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생명윤리와 생명윤리교육의 의미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시작하고자 한다. 생명윤리교육의 의미에 대해 살펴본 후에는 생명윤리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생명윤리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에 대해 살펴 본 후에는 현재 교육현장에서 생명윤리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생명윤리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한다.

생명윤리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생명윤리 자체가 실천적인 성향을 더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학문이며 학생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활용 될 때 그 의미가 충족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생명윤리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생명윤리교육에 있어서 도덕적 감수성을 키우는 일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 생명윤리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젝트 교수·학습 방법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앞으로 사회는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 질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생명에 대한 더욱 많은 논쟁과 의문들을 가져 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관점의 생명윤리교육을 실시하여 성장하는 학생들이 자신만 생각하는 관점을 넘어서 자신 그리고 타인의 삶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게 하고 실천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있어 꼭 생각해봐야 할 과제이다.

생명윤리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있어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도 아니며 여러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미래 세대를 위해 더 좋은 방향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II. 생명윤리교육의 의미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성장해감에 따라 생명에 대한 인간의 개입 가능성이 커진데서 생명윤리의 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생명에 대한 개입 가능성이 증가함과 동시에 인격과 비인격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생명윤리를 올바른 관점으로 교육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명윤리교육의 의미를 알기 전에 생명윤리가 무엇인지부터 정의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생명윤리란 생명과학 기술을 인간사회 및 생물권에 응용했을 때 일어나는 철학적,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분야로 “인간이 생명을 책임 있게 다루는 것에 대한 윤리학적 숙고”¹⁾이다. 단순히 생각해서 생명과 관련된 윤리 문제를 다루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생명윤리라는 용어는 1971년 포터(Van Rensseler Potter)에 의해 사용되어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용어지만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²⁾ 생명윤리의 의미를 정의하면서 우리는 생명윤리가 이론적 차원이 아닌 실천적 차원의 의미를 더 강력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실천적 의미란, “무엇이 좋고 나쁜가를 판단하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좋고 나쁨을 판별해서 그것을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나갈 것인가의 문제까지 다루는 것”³⁾을 의미한다. 결국 오늘날 생명윤리는 인간을 포함한 자연 생태계의 모든 생물을 우리가 조작, 변화, 이용하게 되면서 생긴 많은 근원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하는 노력들이라 할 수 있으며, 기술이 발달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수록 점점 더 복잡한 문제들이 나올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보편적 인권을 지키고 자신과 미래 후손들을 위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합리적인 정신을 가지고 생명윤리와 마주해야 할 것이며 이것은 곧 생명윤리교육의 당위를 설명하는 개념이 된다.⁴⁾

그렇다면 본 논문의 핵심이 되는 생명윤리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자. 생명윤리교육이란 “탄생, 성장, 질병, 죽음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⁵⁾으로 정의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생명에 관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올바른 도덕적 감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가지고 현실적 삶과 관련한 실천적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도덕적 감수성이란 도덕적 민감성과 같은 용어로 인지 발달론자인 레스트의 4구성요소 중 도덕적 행동의 산출의 첫 번째 단계를 의미한다. 어떤 상황을 도덕적인 문제 상황으로 감지하고 그 상황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으며 그 행동들이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측면을 의미한다.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은 자신의 주장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엄격히 살펴보는 것으로서 사용되는 언어, 사실 확인, 가치 선택의 잘잘못 여부를 따지는 것을 의미한다. 도덕·윤리 교육은 주어진 사회 규범이나 이상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위 하도록 개인들을 도덕적으로 사회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학생들이 능동,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도덕 행위들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중시하는 발달을 강조해야 한다.⁶⁾ 이런 점에서 생명윤

1) Wilhelm Korff, Lutwin Beck, und Paul Mikat (Hrsg.), *Lexikon der Bioethik*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haus, 1988), Band 1. S. 7~8
 2) 한진아, “중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생명윤리교육의 실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년, pp.9~13
 3) 권복규, 『생명 윤리 이야기. 꿈꾸는 과학 도전받는 인간』(서울 : 책세상, 2007) p.17
 4) 권복규, 『생명 윤리 이야기. 꿈꾸는 과학 도전받는 인간』(서울 : 책세상, 2007) pp.16~29
 5) 김대균, “생명윤리교육에서 내러티브 활용”, 『윤리교육연구』(한국윤리교육학회 제 27집 2012) p.33
 6) 윤순애, “생명윤리교육의 현황과 방향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년 12월 p.40

리 역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 생명윤리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의 범주에 대해 본 논문의 범위를 밝혀 둘 필요가 있겠다. 생명윤리교육은 위에서 정의했듯이 생명과 관련된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다. 때문에 생명을 다루는 일을 주로 삼는 의료계열, 생명윤리를 연구하는 학자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배우는 학생들이 생명윤리교육을 받아야 하는 필수적인 대상들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중, 본 논문에서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개념을 기본적으로 정립하는 학생들로 한정하겠다. 이렇게 학생들로 범위를 한정 한 이유는 의료계열에 종사를 하건, 생명윤리에 대해 연구를 하건 그들은 모두 학생이라는 신분을 거쳐서 직업에 종사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학교현장에서 생명윤리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정립하는 일은 후에 직업윤리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부분이다. 덧붙여서 전원주(2008)는 생명윤리교육의 목적은 교육을 통해 관련문제의 극복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생명윤리교육은 생명이라는 삶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생명과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관련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에게도 올바른 판단 능력과 도덕적 가치관을 부여하고자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 생명윤리교육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이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⁷⁾

또한 생명윤리교육을 말할 때 생명의 범위는 인간 이외의 모든 생명을 의미⁸⁾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인간 생명에 관한 윤리를 교육하는 것에 집중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교육현장에서 인간이외의 모든 생명의 범위를 다루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 생명에 대한 올바른 윤리적 관점을 배운 학생들은 다른 생명도 가치 있게 여길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III. 생명윤리교육이 필요한 이유

1. 인간 존엄으로서의 생명윤리교육

인간의 존엄성이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고 도덕적으로 대우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⁹⁾ 실제로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¹⁰⁾라고 서술되어 있다.

인간 존엄으로서 생명윤리교육의 중요성은 몇 가지 계기가 존재한다. 첫 번째 계기는

7) 전원주, “중학교 도덕과에서 생명윤리교육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년 6월, p.8
 8) 홍석영, “인격주의에 기초한 생명윤리 모색” 『국민윤리연구』 제55호 p. 237
 9) 정창우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미래엔) p.196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0조” 『대한민국 헌법』(시행 1988.2.25)

세계 2차 대전 도중, 독일의 나치와 일본군이 저지른 인체실험과 전체주의로 인한 인간 존엄의 상실이다. 나치와 일본 731부대의 생체 해부, 거세, 독물투여, 의도적인 세균 감염 등 다수의 끔찍한 실험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사건은 오늘날 생명 윤리의 초석이 되는 ‘뉘른베르크 강령’을 탄생시켰고, 더 나아가 ‘세계 인권 선언’에도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계기는 2차 대전 이후 의학, 생물학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인간이 대상인 연구나 의료 행위와 인간성의 본질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하게 되면서부터이다. 20세기 초까지는 매우 제한적인 의료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는 의사와 환자의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졌다. 당연히 ‘인간’과 ‘생명’의 개념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과 ‘인권’, ‘생명’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문제들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임신중절의 문제는 인간 생명의 시작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만들었고, 장기이식과 뇌사의 문제는 사람이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느냐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고민들은 자연스럽게 생명윤리를 인간 존엄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¹¹⁾

다음으로 생명윤리의 근본 원리를 살펴보자. 제 1원리는 인간 생명의 절대적 가치이다.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한 인격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고유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다.¹²⁾ 이는 생명윤리가 인간 존엄에 기초해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간 존엄으로서 생명윤리는 나아가 인간 존엄으로서 생명윤리교육까지 이어지는 개념이다.

생명윤리 교육의 목적도 인간존엄에 있다는 사실 또한 당위성을 입증하는데 기여한다. 생명윤리교육은 인간 존재로서 자신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교육의 대상은 궁극적으로 개인이라는 점을 생각하여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회와 분위기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며, 가장 먼저 자신을 아끼고 사랑함으로써 스스로의 존엄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엄이 결여된 인간은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해 주체적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없으며, 더불어 사는 삶을 능동적으로 꾸려 나가기 어렵다. 더불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윤리는 인간의 유용성에 합치되는 가치를 만들고 주입하는 윤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윤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명윤리교육은 인간존엄성의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 결론적으로 생명의 의미와 소중함을 일깨우는 것과 함께 인간 존엄성의 회복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성을 회복해야 한다.

또한 독일의 생명윤리학자인 비른바허(Dieter Birnbacher)는 인간존엄의 개념을 형량불가능한 도덕적 권리의 집합으로서 인간존엄, 인간에 대한 존경으로서 인간존엄, 인간존엄(Gattungswürde)의 3가지로 구분한다.¹³⁾ 법철학의 개념에서 나온 내용이지만 이 역시 생명윤리는 인간 존엄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고, 생명윤리교육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11) 권복규, 『생명 윤리 이야기. 꿈꾸는 과학 도전받는 인간』(서울 : 책세상, 2007) pp.16~29

12) 라몬 루카스 루카스, 김명수 옮김, 『알기쉬운 생명윤리』(서울: 가톨릭 출판사, 2007) p.37

13) 고봉진, “생명윤리에서 인간존엄‘개념’의 총체성” 『법철학연구』 제 11권 제 1호 p.95

본 논문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생명윤리교육의 범위를 인간 생명에 한정한다. 생명윤리교육은인간의 존엄성과 깊이 관련되어있다. 때문에 올바른 생명윤리교육은 인간 존엄에 기초하여 정립된 생명윤리를 잘 전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며 인간 존엄의 중요성과 당위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2. 인격주의에 기초한 생명윤리교육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생명윤리는 인격주의에 기초해야하며¹⁴⁾ 생명윤리교육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인격주의에 기초해야 한다.

인격주의란 윤리학에 있어서 인격에 최고 가치를 부여하며, 인간의 지위와 인격을 동일시하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삶의 모든 단계에서 인정하는 이론이다. 때문에 인간 생명을 책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생명윤리와 생명윤리교육은 인격주의에 기초해야 한다.¹⁵⁾

그렇다면 인격주의에 기초한 생명윤리 원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스프레차(Elio sgrechia)는 4가지 인격주의에 기초한 생명윤리 원칙을 제시한다. 육체적 생명의 기본 가치 원칙, 자유와 책임의 원칙, 사회성과 보조성의 원칙, 전체성의 원칙이 그것이다. 첫 번째로 ‘육체적 생명의 기본가치 원칙’이란 인간의 육체적 생명은 인격 자체의 기본적인 가치라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신성한 것이라는 의미다. 두 번째로 ‘자유와 책임의 원칙’은 생명의 기본 가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개념이다. 이 때 자유는 책임의 이념에 근거한 자유를 의미하며, 나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가 존중될 때만 참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사회성과 보조성의 원칙’에서 사회성의 원칙이란 모든 개별 존재의 생명과 건강의 증진은 우리 사회의 생명과 건강이 증진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조성의 원칙은 모든 고차원의 사회적 단위는 그보다 하위의 단위들이 스스로 성취할 수 없는 일을 보조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개입 가능하다는 원칙이다. 이들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존재한다. 또한 사회성과 보조성의 원칙은 인간 존재로서 타인의 존엄에 근거한 상호 존중의 의무에서부터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전체성의 원칙’이란 생명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생명 존재의 전체성 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른 말로 치료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부분에 대한 개입은 전체를 고려해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환자에 빚대어 설명하자면 인간 생명에 대한 개입은 그렇게 개입 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치료방법이 없고, 결과에 대한 희망적이고 구체적인 결과가 존재하며,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진 상황에서 치료에 동의할 경우에만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¹⁶⁾ 인격주의에 기초한 생명윤리 원칙은 위와 같이 4가지로 구분 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인간 존엄과 인격의 존중에 기초한 원칙으로 생명윤리교육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14) 홍석영, “인격주의에 기초한 생명윤리 모색” 『국민윤리연구』 제55호 pp. 235~236

15) 홍석영, “인격주의에 기초한 생명윤리 모색” 『국민윤리연구』 제55호 p. 241

16) 홍석영, “인격주의에 기초한 생명윤리 모색” 『국민윤리연구』 제55호 pp. 246~249

하고 기본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개념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격주의에 기초한 생명윤리 원칙을 중요시 다루었지만, 기본적인 생명 윤리의 4가지 원칙 역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생명윤리의 기본 원칙으로는 자신의 생각과 가치신념에 따라 행동할 권리인 자율성의 원칙,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거나 입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경계하는 악행금지 원칙, 악행 금지의 적극적인 차원으로서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7)을 기본적으로 지켜야하고, 교육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본적인 생명윤리 원칙과 인격주의 생명윤리 원칙에 입각한 생명윤리교육만이 학생들에게 올바른 윤리적 반성능력을 키워줄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생명윤리교육은 인격주의에 기초해야 한다.

IV. 현재 생명윤리교육의 실태

생명윤리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국내 중학교, 고등학교 생명윤리 교육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국외 유네스코 생명윤리교육과정을 살펴보자.

2012 교육과정에 기초한 중학교 생명윤리 교육과정을 보면, 대단원 4단원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에서 중단원 2단원에서 삶의 소중함과 도덕이라는 단원에서 생명에 관해 다루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삶과 죽음에 대한 도덕적 성찰, 인간 삶의 유한성에 대한 각성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학습한다.¹⁷⁾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보면, 『윤리와 사상』은 비교적 여러 사상가들의 철학적 주장에 대해 배우는 교과이고, 생명윤리 관련 내용을 학습하는 것은 『생활과 윤리』 과목이다. 대단원 2단원에서 중학교 내용 보다 심화된 생명윤리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삶과 죽음의 윤리’의 단원에서 세분화 된 개념인 출생과 죽음의 의미와 낙태, 자살, 안락사에 대한 문제 등을 배우게 된다.¹⁸⁾ 교육과정 안에서는 삶과 연 관하여 현대 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 즉, 윤리적 반성능력을 키우고 합리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교육 과정이 성립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강의식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학생 참여를 높이는 수업은 시간이나 시수에 의해 한계를 가진다. 또한 도덕에서 윤리적인 문제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교과서 내용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옳고 그른지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은 옳은 윤리적 행위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전체적으로 실천적 차원에서는 많이 미흡하다. 때문에 올바른 생명윤리의식 정립을 위해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식의 개선과 교육자료 개발이 시급하다.

여러 한계를 자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교육부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 2012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도덕함’이라는 실천적인 개념을 추가한 점이다. 현실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도덕문제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느낄 수 있으며 이론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이끌어가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도덕과 선택과목인 『생활과 윤리』의 성격은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와 쟁점을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 및 실천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²⁰⁾이다. 특히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실, 배려, 정의, 책임을 내면화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도덕적 탐구 및 윤리적 성찰, 실천 과정으로 이어지는 도덕함의 능력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한다.²¹⁾ 이 점에서 생명윤리 역시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실제 자신들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외에서는 어떤 생명윤리교육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2005년 10월 19일 프랑스 파리 제 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생명윤리와 보편적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은 인간 생명과 인간 존엄성 존중을 목적으로 채택되었다. 이 선언을 기반으로 유네스코는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 프로그램(UNESCO bioethics core curriculum)’을 개발, 보급 하였다. 이는 공통된 생명윤리의 국제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의과대학 학생들과 생명과학 관련 연구자 및 여타 의료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생명윤리 핵심교육과정은 무엇보다 교육과정의 내용과 틀에서 실천적 판단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²²⁾

유네스코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은 1권은 교수요목으로, 2권은 학습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에 개발된 핵심 교육과정 사례집은 전 세계 국가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생명과학 기술 관련 관례를 통해 사례에 내포된 딜레마를 다루고 있다. 때문에 학습자들은 각각의 실제 사례에 있어 인간 존엄성에 대하나 존중을 숙고할 수 있다. 또한 유네스코 핵심 교육과정은 사례집을 활용하여 콜버그의 딜레마 토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토론을 통하여 비판적 사고능력과 윤리적 반성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레스트의 DIT측정 방법으로 평가 방안을 마련했다. 이런 평가 방안은 모든 회원국에서 활용 될 것을 전제로 마련되었다.²³⁾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 생명윤리 핵심교육과정의 적용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

17) 토마스 A. 쉐넨 지음, 구미정·양재섭 옮김, 『기초 생명윤리학』(경북: 대구대학교출판부) pp. 30~37
 18) 교육과학기술부, 『도덕과 교육과정』(2012-14호 도덕과 교육개정) p.26
 19) 교육과학기술부, 『도덕과 교육과정』(2012-14호 도덕과 교육개정) pp. 32~60

20) 교육과학기술부, 『도덕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6) p.33
 21) 교육과학기술부, 『도덕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6) p.34
 22) 백지연, 이은애, 정창록, “유네스코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을 활용한 생명의료윤리교육의 모색”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 19권 3호 (통권 48호) : 2016년 p.283
 23) 백지연, 이은애, 정창록, “유네스코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을 활용한 생명의료윤리교육의 모색”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 19권 3호 (통권 48호) : 2016년 pp. 285~293

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연구할 교육과정 전문가들의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²⁴⁾

또한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들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생명윤리교육의 대상자들을 생명의 가치에 대한 개념을 기본적으로 정립하는 학생들로 한정하겠다고 하였는데, 유네스코 생명윤리 교육과정은 의료계열 종사자나 생명윤리 연구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네스코 생명윤리 교육과정을 가져 온 이유는 첫째로 현재 생명윤리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외에서는 어떻게 생명윤리교육이 일어나는지 많은 사람들이 친숙하고 잘 알고 있는 기관을 들어 설명을 돕고자했기 때문이다. 둘째로 유네스코의 생명윤리 핵심교육과정은 비록 전 세계의 의과대학생들과 생명과학 연구자 및 여타 의료직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나온 교육과정이라는 점이 바로 교육현장에 그것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유네스코의 생명윤리교육과정이 주는 시사점이 많고 이를 충분히 응용한다면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맞는 생명윤리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V. 교육현장에서 생명윤리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지금까지 교육현장에서 생명윤리교육이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생명윤리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생명윤리교육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도덕함’이라는 개념과 연관되어 실천적인 차원이 많이 증가 되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생명윤리교육은 생명에 관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올바른 도덕적 감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가지고 현실적 삶과 관련한 실천적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때문에 개념적 영역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생명윤리교육을 실천적 영역과 연결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과정이다. 그동안의 주입식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많이 생각할 수 있는 학생활동이 중심이 되는 교수학습법을 진행하여 윤리적 감수성과 비판능력을 쌓을 수 있게 도와야하고 그 과정에서 교사는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교수학습방법이 학생들의 참여 활동을 높이고 도덕적 감수성과 비판적 사고능력을 증대시키면서 학생들의 실제적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 대안으로 프로젝트 수업의 교수학습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종래 교사중심이었던 학습에서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방식으로서의 변화의 가운데 프로젝트 수업이 존재한다. 프로젝트 학습은 학교와 학습이 삶에서 가지는 의미를 강조하고,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몰입을 촉진하고 공동체 정신과 민주 시민의 자질 습득, 의

24) 백지연, 이은애, 정창록, “유네스코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을 활용한 생명의료윤리교육의 모색”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 19권 3호 (통권 48호) : 2016년 p. 293

미 있는 삶과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접근 방식으로 특정 주제에 대해 구성원들 간에 서로 협력하면서 주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목적지향적인 수업이라 할 수 있다.²⁵⁾ 또 다른 정의에 의하면 프로젝트 수업은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아동이 책임을 지고 특별한 주제를 깊이 있게 연구”²⁶⁾하는 것이다.

생명윤리를 다루는 주제 중에 ‘삶과 죽음의 윤리’에 프로젝트 학습을 활용한다면 예비단계에서 주제를 설정하고, 준비단계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학습 활동 계획서를 만들게 지도하고 시작과 전개단계에서 학생들은 자유롭게 주제에 대한 여러 자료와 실제 삶과 관련하여 주제를 탐구하고 마무리, 평가 단계를 거칠 수 있다.²⁷⁾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논의하면서 도덕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다.

생명윤리교육에서 프로젝트 교수학습방법 활용하는 것 이외에도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정보전달의 형태보다 학생들의 능동적인 사고와 활동을 증진시키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생명윤리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비판적 사고력을 키워 줄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생명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그 출발선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의 논점을 흐리거나 문제 자체를 숨겨버리려는 의도를 꿰뚫을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이 필수적이다. 생명윤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비판적 사고력을 매우 정직하고, 편협하지 않은 시각에서 공정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생명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한 내재적 실천력을 강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에서의 부단한 내재적 실천력의 강화를 통하여 실제 학생 자신의 삶에서 조금 덜 편리하거나, 조금 덜 충족시킬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며, 특히 약자에 대한 배려가 더불어 사는 생명윤리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²⁸⁾

또한 국외 유네스코의 생명윤리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생명윤리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보면 유네스코 교육과정은 한국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생명의료교육 교재들과는 연관성이 부족²⁹⁾하고, 아직 한국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료계열이지만 교육환경에 적용하기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25) 이경희, “프로젝트 학습의 도덕교육에의 적용 -『2012 도덕과 교육과정』에 따른 『생활과 윤리』 생명윤리 수업을 중심으로-” (윤리연구 제 99호) p. 244

26) Lilian G. Kate & Sylvia C. Chard, *Engaging Children's Minds : The Project Approach*, Norwood(New Jersey : Ablex, 1992) p.2

27) 이경희, “프로젝트 학습의 도덕교육에의 적용 -『2012 도덕과 교육과정』에 따른 『생활과 윤리』 생명윤리 수업을 중심으로-” (윤리연구 제 99호) pp. 254~255

28) 윤순애, “생명윤리교육의 현황과 방향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년 12월 pp.41~43

29) 백지연, 이은애, 정창록, “유네스코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을 활용한 생명의료윤리교육의 모색”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 19권 3호 (통권 48호) : 2016년 p.293

VI. 결론

지금까지 교육현장에서 생명윤리교육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생명윤리의 의미, 생명윤리교육의 의미 그리고 생명윤리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두 가지 근거를 들어 설명하면서 생명윤리교육의 중요성과 당위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현재 생명윤리교육의 실태를 국내 중·고등학교의 예시와 국외 유네스코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을 들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생명윤리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프로젝트 수업의 교수학습방법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실제적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젝트 수업을 생명윤리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설명하였지만 학생들의 참여와 실생활과 연결시킬 수 있는 다른 좋은 교수학습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프로젝트 학습을 이야기한 것은 어디까지나 주장이지 그 내용을 강요할 수는 없다.

생명윤리교육은 넓은 의미에서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합당한 윤리적 숙고를 거쳐 대우할 것을 교육하는 것이다. 즉, 생명윤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도덕적 감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워 현실 생활에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것이다.

옳고 그른 가치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고 배워나가는 시기가 중·고등학교 시기이고 학생들은 이 시기에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 자연스럽게 교사는 학생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 된다. 이 점이 바로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올바른 생명윤리교육을 하기 위해 어떤 점에 근거하고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하는지 바로 알아야 하는 이유이다.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역할과 교사가 사용하는 교수학습방법, 평가 등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교사 혼자만으로는 이를 잘 실현 할 수 없다. 교육현장에서 생명윤리교육이 학생들의 도덕적 감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고 현실에 잘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집필하고 교재를 연구하는 교육계열 종사자들의 노력 역시 중요하다. 더 나아가 가정에서도 이를 잘 교육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과 조력자로서 역할을 해 준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교육환경이 만들어 질 것이다.

또한 국외 생명윤리교육의 실태를 이야기하면서 유네스코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을 설명하였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아직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교육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학생들에게 옳은 생명윤리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계열에 종사하는 많은 이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 외에도 가정이나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올바른 교육은 올바른 사회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사항이다. 인간의 존엄과 인격주의에 기초하여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고 도덕적 감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훌륭한 인격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생명윤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문헌

고봉진, “생명윤리에서 인간존엄‘개념’의 총체성” 『법철학연구』 제 11권 제 1호
교육과학기술부, 『도덕과 교육과정』 (2012-14호 도덕과 교육개정)
교육과학기술부,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지 제 2015-74호 별책 6)
김대균, “생명윤리교육에서 내러티브 활용”, 『윤리교육연구』 (한국윤리교육학회 제 27집 2012)
권복규, 『생명 윤리 이야기. 꿈꾸는 과학 도전받는 인간』 (서울 : 책세상, 200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0조” 『대한민국 헌법』 (시행 1988.2.25)
백지연, 이은애, 정창록 “유네스코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을 활용한 생명윤리교육의 모색”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 19권 3호 (통권 48호) : 2016년
전원주, “중학교 도덕과에서의 생명윤리교육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년 6월)
윤순애(2001). “생명윤리교육의 현황과 방향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경희, “프로젝트 학습의 도덕교육에의 적용 『2012 도덕과 교육과정』에 따른 『생활과 윤리』 생명윤리 수업을 중심으로”. 윤리연구 제 99호
정창우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미래엔)
한진아(2006),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 나타난 생명윤리교육 실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홍석영, “인격주의에 기초한 생명윤리 모색” 『국민윤리연구』 제55호
라몬 루카스 루카스, 김명수 옮김, 『알기쉬운 생명윤리』 (서울: 가톨릭 출판사, 2007)
토마스 A. 쉐넌 지음, 구미정·양재섭 옮김, 『기초 생명윤리학』 (경북: 대구대학교출판부)
Lilian G. Kate & Sylvia C. Chard, *Engaging Children's Minds : The Project Approach*, Norwood(New Jersey : Ablex, 1992)
Wilhelm Korff, Lutwin Beck, und Paul Mikat (Hrsg.), *Lexikon der Bioethik*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88), Band 1. S.

Abstract

Application of Bioethics Education in Middle and High School

Kim, Ji-Hye

In this thesis, I will begin by explaining the meaning of bioethics first. After that, I will give two reasons why bioethics education is necessary. After looking at the necessity and justification for the bioethics education, we will look at how the bioethics education is being conducted on the current middle and high school education site and discuss the future direction of bioethics education.

What is important in bioethics education is that it is a study that has a stronger instinct for practical behavior and that its meaning can be satisfied when used in the daily lives of students. In order for bioethics to be used in students' everyday lives, it is important to increase moral sensitivity and critical thinking skills in bioethics education. The future direction of bioethics education will be explained by project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that can develop this ability.

Key words: Bioethics, Bioethics Education, Moral Sensitivity, Critical Thinking, Project Learning

논문 투고일: 2018. 6. 08.

심사 완료일: 2018. 6. 10.

게재 결정일: 2018. 6. 30.